

# 탄력받는 프로야구 5월초 개막



2020년 프로야구가 5월1일 혹은 5일에 개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마지막 관심사는 우려가 따르고 있는 144경기 완주 여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오전 서울 양재동 캠코타워에서 열린 이사회(사장단 모임)를 열고 2020 KBO리그 개막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미뤄진 정규시즌 개막 날짜가 이날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14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KBO는 21일 이사회 때 개막일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러모로 개막이 탄력 받을 조건의 마련됐다. 조심스럽기는 하나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가

일일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등 흐름이 나아졌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고무적이다.

한시라도 빠른 개막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 5월1일 개막이 유력하다는 분위기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과 어린이날의 상징성을 고려, 5일에 개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경기는 무관중으로 펼쳐진다. KBO는 상황에 따라 관중 입장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소규모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이 유력

오늘 이사회서 5월1일·5일 중에 개막일 확정  
부담스러운 144경기 관련 합의점 찾을 지 주목

하다. 개막에 앞서 21일부터는 구단간 연습경기가 시작된다. 방일치가 원칙으로 구단별 4경기씩 치른다. 사실상 시범경기 역할로, 개막에 앞서 최종 리허설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남은 과제는 144경기 유지 여부다. KBO는 지난 이사회 때도 이에 대해 오랜 시간 토론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인데 일단 5월초 개막이 확정되면 물리적으로 144경기 소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KBO와 구단들은 재정적 이유를 들어 144경기 소화를 최우선 방침으로 밀고 나갔다.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돼 올림픽 휴식기가 필요 없어졌고, 올스타전 역시 개최하지 않는 방향이 유력해 일정 상 여유가 생겼다. 11월 하순 포스트시즌을 고척돔 중립경기로 치르는 방안도 정해지며 날씨에 대한 걱정도 덜었다.

하지만 여전히 144경기 강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존재한다. 여유가 생겼지만 그래도 타이프한 일정이고 여름 이후 집중될 기후 변수도 부담요소다.

KBO는 일단 취소된 경기에 대해 특별히, 월요일 경기를 대안으로 잡았지만 선수층이 얇은 KBO리그 현실에서 경기력 저하, 부상위험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스(WBC), 7월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가 연달아 열리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 몇 년 간 경기력 저하와 관련한 팬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KBO로서는 고민이 깊을 상황이다. 변수로 가득한 올 시즌까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여론은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축소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이라는 현실을 간과하기도 어렵다.

5월초 개막이라는 단초는 마련했지만 아직 KBO의 고심은 끝나지 않았다.



## 차두리 "아버지 차범근, 가끔 미웠다...나에겐 큰 벽이었다"

차두리(40·현 오산고 감독)가 한국 축구의 '전설' 이자 아버지인 차범근(67)의 그늘로 인해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회고를 전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9일(한국시간) 차두리의 인생 스토리를 소개했다.

AFC는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인 아버지(차범근)의 명성으로 인해 차두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차두리의 부친인 차범근은 한 국 축구대표팀에서 120경기에 나와 50골을 넣었고 2차례 UE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축구 스타로 이름을 날렸다.

차두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슈퍼스타'의 아들이었다. 차두리는 "가끔 아버지가 미웠다"라며 "그가 이른 업적은 내게는 큰 벽과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축구 선수로서 아버지는 목표였고, 아버지처럼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차범근은 1980년대 프랑크푸르트와 바이에른 레버쿠젠에서 최고 스타였다.

독일에서 태어난 차두리는 당시를 돌아보며 "(아버지 덕분에)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차두리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당시 거스 허딩크 대표팀 감독의 눈에 띄어 태극마크를 달았다.

당시 고려대 재학 중이었던 차두리는 "국가대표팀에 발탁돼서 굉장히 놀랐다"라며 "아직 프로에 가지 않은 선수를 뽑았다는 점에서 당시 화제를 모았다"고 돌아봤다.

차두리는 "허딩크 감독은 내

가 빠르고 좋은 피지컬을 갖췄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주전은 아니었지만 상대가 지쳤을 때 투입되는 조커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역사적인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차두리는 이후 독일로 돌아와 아버지가 뛰었던 레버쿠젠에 입단했다. 독일에서 여러 팀을 돌며 아주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차범근의 아들'이라는 압박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분데스리가에서 차두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차두리는 2005-06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 푼켈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공격수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차두리는 "당시 골을 넣지 못해서 압박감이 컸고, 매 경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푼켈 감독의 풀백 제안을 받아들인 뒤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두리는 자신이 태어난 독일에서 열린 2006년 월드컵에는 엔트리에서 빠졌다. 하지만 독일에서 꾸준한 활약 끝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 한국의 16강 진출에 힘을 보탰다.

차두리는 2011년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뛰었던 국가대표 라인업을 선수시절 최고로 꼽았다.

차두리는 2015년을 끝으로 선수생활을 은퇴했다. 차두리는 "한국에서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부담이 크다"라며 "축구를 잘하면 사랑을 받지만 못하면 큰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난 항상 행복했고 팬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떠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두 팔 벌린 이동국·어퍼컷 염기훈...K리그 인상적 골 세리머니는

90분 동안 펼쳐지는 축구 경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고르라면 역시 골이 터질 때다. 시원한 골과 함께 선보이는 선수들의 세리머니는 골에 대한 기쁨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팬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K리그 선수들 중 눈여겨 볼만한 골 세리머니를 펼치는 인물들을 공개했다. 아무래도 골을 넣은 경험이 많은 베테랑 공격수들이 이름을 많이 올렸다.

전북현대 이동국은 항상 득점을 성공시킨 뒤 두 팔을 양쪽으로 펼치는 세리머니를 한다. 특별한 것 없는 무난한 세리머니지만 이동국이 하면 다르다. 통산 224골로 K리그 최다 득점 1위인 그는 골을 넣을 때마다 기록을 쌓는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프리키의 달인 수원 염기훈은 항상 골을 넣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다. 단순한 어퍼컷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고 짜릿한 표정을 짓는 게 포인트인데 마치 '히게 골

맛이야'라고 보여주는 듯하다. 그라운드 로텐티스트인 제주 유나이티드 정조국은 항상 아내를 위한 반지 키스 세리머니를, FC서울 박주영은 득점 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전례특히 세리머니를 갖고 있다.

"별명값" 하는 선수들도 있다. 인천유나이티드 송시우는 주로 후반 중반에 투입돼 극적인 골을 자주 성공시켜 '시우타임'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이 수식어에 어울리는 세리머니 또한 송시우의 전매특허인데 항상 골을 넣은 뒤 자신의 손목을 가리키며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알린다. 송시우가 골을 넣는 시우타임이란 뜻이다.

눈을 가렸다 서서히 얼굴을 보여주는 기생충 하트 세리머니 등으로 화제를 모았던 지난해 MVP 김보경은 올해 전북에서 다양한 세리머니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득점 후 관제탑 댄스를 선보이는 상주 문선민, 늘 서포터에게 달려가 두 팔을 위로 벌리고 포효하는 무고사 등 다양한 선수들이



올해도 멋진 골과 재치있는 세리머니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선수 개인이 아닌 팀 전체가 특별한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클럽도 있다. 부산과 울산이 대표적이다.

2018년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부산 김문환, 호물로, 이동준 등은 색다른 세리머니를 고민하다가 카메라 앞에서 단체로 포즈를 취하는 세리머니를 하게 됐다. 이를 시작으로 2019년에도 매 경기마다

누가 득점을 하든 다 같이 카메라 앞에 모여 각자 손으로 턱을 받치는 포즈, 일렬로 서서 본인 유니폼 마킹을 가리키는 포즈 등 다양한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울산은 팀의 상징 호랑이를 활용한 재치 있는 세리머니를 선보인다. 2017년 당시 울산에서 뛰던 이종호가 득점 후 양 손을 호랑이 발톱처럼 세운 뒤 포효하는 세리머니를 했던 것을 시작으로 이는 울산 선수들의 시그니처 세리머니가 됐다.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